

연중 제12주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제1독서: 욥 38, 1. 8-11

제2독서: 2고린 5, 14-17

복 음: 마르 4, 3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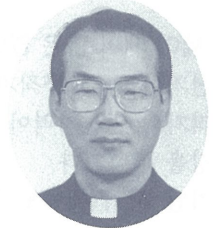
순정이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마르 4, 40)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종원 신부/서학동성당

오늘 복음을 보면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피곤에 지치신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

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센 바

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

로 들어쳐 배에 가득차게

되어 배가 뒤집힐 지경

에 이르렀습니다. 제자

들은 주무시는 예수

님을 깨우며 “선생

님! 저희가 다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

지 않습니까?” 부

르짖으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다고 제자들은 야단을 맞습니다.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으려 할 때 두레박이

필요하듯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굳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사랑과 기쁨과 평

화, 인내, 친절, 온유, 절제의 삶을 살

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갖

은 풍파 속에서도 내적 기쁨을 안

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

고 하고자 하는 일을 훌륭

히 해 낼 수 있는 힘과 용

기와 능력을 줍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마태오 9, 29).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

다”(마태오 17, 20).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필립 4, 13).

아멘.



우리들이 남이여?

한 상 갑(바오로)

□ 제이 케이 판은 없어야

선거나 고위 공직자 임명이 있을 때면 후보자나 공직자의 출신지역이 영락없이 불거져 나와서 지역 감정을 부추긴다.

지난 선거 때에도 “우리가 남이가!”라는 한 마디가 우리를 슬프게 만들은 적이 있었다. 거기다 대통령의 출신지역을 따라서 높은 자리나 좋은 자리는 티케이(TK)세력이나 피 케이(PK)세력이 독차지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전주나 광주 그리고 전라도를 뜻하는 제이 케이(JK)라는 신조어는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물론 충청도나 강원도 쪽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0년 가까이 계속되어온 우리의 불행한 역사의 한 모습이라 하겠다.

다행히도 요즈음에 새로운 선거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방송을 통한 대선 주자 토론회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자면 후보자가 야당 한 사람 밖에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토론회는 의미가 없다 하겠다. 어찌보면 그 자리는 여당의 선전장에 불과한 불공정한 자리요, 또 여당의 손을 들어주는 방송언론사가 제공하는 프리미엄이라고도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론정치의 새로운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 우리는 남이 아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복讎 동포들의 굶주림을 덜어주고자 정성을 모으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성이 총칼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 오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도 말이다. 특히나 6.25의 비극을 체험한 이들에게는 그 걱정의 무게는 더하다. 그래도 어찌할 것인가. 하기사 한푼이라도 생기면 손에 돈을 쥐자마자 술집으로, 노름판으로 흥동가로 줄달음질을 치는 망나니 아우가 어찌 미웁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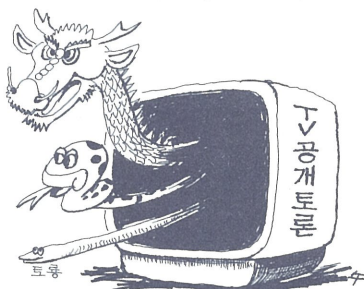
을 것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비 잘못 만나 고생하는 철부지 조카들을 외면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마침 지금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때이다. 굶주림에 지친 복讎 형제들과의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첫째는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곧 “한 핏줄 한 겨레이면서도 서로 혈통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 주소서”라는 기도를 몸으로 사는 일이다. 이 기간 동안에 갈려나간 형제들도 “한 핏줄이면서 46년 동안 원수로 살아온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기운으로 서로를 받아들이실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

서로 하나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남이여?”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은 넉넉해진다. 그것이 곧 사랑 나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가는 요즈음 어려운 이웃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일은 신앙인의 몫이다. 그 이웃이 바로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인,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결코 남일 수 없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가족이다.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우리가 남이가”하며 편을 가르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

숲정이 산책



92 대선때부터 했어야 하는데...

복음화는 나 자신부터



민족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주교구 레지아 단장 고흥석(사도 요한) 교수님을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본관으로 찾아가 뵈고 레지오 활동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다.

- 전주 교구 레지오 마리아를 위해 중책을 맡아 봉사하고 계신데요. 언제부터 레지오 활동을 하시는지요?

□ 먼저 저의 천주교 입교 동기를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87년 6월 민주 항쟁때 팔달로에서 촛불 시위가 있었죠.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는 맨 앞줄부터 사제, 수도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그리고 신자들이 촛불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시위 진압대들이 터뜨린 최루탄으로 아주 고통스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 한 사람이 마스크를 씌운 어린 아들을 목말태우고 시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힘든 상황에 어린 아들까지 데리고 나온 그 사람에게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행위였고 그런 신앙을 가능케 하는 종교라면 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을 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뒤 곧바로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 12월에 온 가족이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레지오 활동을 시작했고, 레지아 단장을 맡아 3년 임기가 끝나고 4년째 연임하고 있습니다.

- 레지오 단원들이 하고 있는 민족 복음화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 요즘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희년'이라는 기쁨의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신자들 스스로 그 의미와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작년 전국 레지아 모임에서 결정한 것이 민족의 복음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북한 선교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개인의 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의미에서 레지오 단원인 내가 먼저 복음화 된 신앙인이 되자는 운동입니다.

-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요?

□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목표 아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첫째, 매일 5단씩 묵주 기도 바치기, 둘째, 평일 미사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석하기. 셋째, 한 단원이 한 사람씩 선교하기. 넷째, 한명 이상의 단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전주교구에서 벌이고 있는 '성서통독'이 있지요. 현재 열심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 오천명의 단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묵주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저는 가장 민주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이 대부분인 레지오 단원들이 즐겨하는 할 수 있는 기도지요. 단순하게, 그러면서 모든 것을 걸어서 하는 기도예요. 이것을 어떻게 주술적인 기도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 성모님과 레지오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 성모님을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지요. 당신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시고, 그 고통을 체험하신 분이시고요. 성모님이야말로 신앙의 처절함을 아는 어머니이신데 그런 분을 주보로 모신 레지오 단원들이야말로 순수한 열정을 가진 분들입니다. 신앙은 무사함과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만사에 하느님의 뜻을 찾으신 성모님에게서 삶을 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집

밥을 나눠 먹는 것은 평화

한국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 한민족 복음화 분과장 김은선(베아타)수녀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북한 동포에게 쌀 보내기 운동을 하면서 알게된 북한의 현실을 담은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들녘은 모내기를 거의 끝내고 나날이 푸르름을 더해 가는 희망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에서 한시간 남짓한 지척의 북녘 형제들은 굶주림으로 희망이 없는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형제들에게 쌀 보내기 운동을 하면서 알게된 홍콩 까리파스 국제 구호 북한 담당관으로 일하는 캐티 켈버거씨를 통해 북한의 실정과 우리가 모으는 성금이 어떻게 전해지는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국제 식량 기구에서 파견된 5명의 직원이 머물며 국제적인 구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티씨는 작년부터 11차례에 걸쳐 남한의 형제들이 모은 성금으로 타일랜드산 쌀(알랑미)을 사서 남포항을 거쳐 북한으로 가져 가고 또 그것이 제대로 전해지는지 직접 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큰 물 대책 위원회'라는 단체가 외국에서 보내주는 식량을 받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

다고 합니다. 홍콩 까리파스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량은 금강산 아래 일부 지역과 원산 일부, 황해도 일부지역의 130만 형제들의 기근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서로 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은 십자표시 하나만 있는 쌀 포대를 보고 남조선 천주교 형제들이 보내준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캐티씨가 그들의 집을 찾아가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고, 특히 생색을 내거나 드러내지 않고 보내주는 마음씨에 더욱 감동한다고 합니다. 그렇긴 해도 북한 전체의 기아상태를 생각하면 더 많이 도와 주어야 할텐데 하는 조바심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캐티씨는 북한을 다녀올 때마다 우리 형제들의 참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와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돌아온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0일에



북한에 전달된 구호식량

사단법인 대한해동검도

- 정신통일과 집중력 향상
-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수양

박요한(요한) · 박은경(루시아)

익산 전원펜션 상가 2층

☎ 857-7144, 0779

침대쿨 전시장

◎ 목재침대

- 싱글 : 110,000원
- 더블 : 160,000원
- 쿨 : 300,000원

이 레 가 구 산 업

김 미 숙(안젤라)

완산구 삼천동(풍납중 건너편)

☎ 225-2368, 5328

영창피아노 전주 총 전시장 A/S 전문점

- 10개월 무이자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 신자분 특별 우대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구 서중로타리 동서중권 맞은편

☎ 252-0103~4

015팔달통신·017

전북이동통신 팔달 대리점
신세기통신 팔달 대리점

오 현 종(스테파노)

유 미 숙(마르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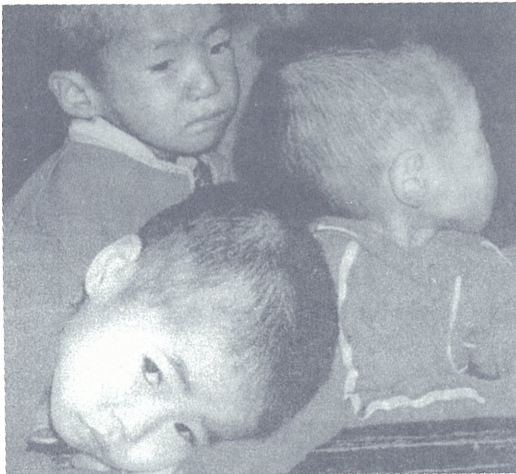
전주 오거리 국민은행 옆

☎ 85-0015~6

통일의 지름길입니다.

2,000톤의 쌀을 가지고 북한을 다녀온 캐티씨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유럽 여러 나라에 원조를 청하러 떠났습니다.

세계 각 곳에서 선의의 사람들이



굶주리는 북한의 어린이들

북한 형제를 돕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그들을 도와 주어야 할 사람은 우리 북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하루 세끼 밥을 먹고도 궁금해서 먹거리를 찾는데 북한에서는 하루 한 끼 밥상에 올리는 것이라고는 풋성귀를 물에 끓인 국 한 그릇이 전부이거나 그나마 그것도 없어서 못먹는

형편인것은 일간신문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항간에는 군량미니 전쟁준비니 하는 말로 북한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 정치적 타산을 하고 있기엔 너무도 급박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까. 이제 이 기도는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다. 밥을 나누어 먹는 행위는 평화 통일의 지름길입니다. 이념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랑으로 도와 주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간 동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행동이 뒤따르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로 합시다. 우리 모두 밥을 나누어 먹읍시다.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고 쪼들린 자의 배를 채워 준다면 너의 빛이 어둠에 떠올라 너의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이사야 58, 10).

요십이 (1245) 김병오



순창성당 김치

천연 양념만으로 맛을 냅니다.
포기김치, 알타리, 열무, 백김치,
돌산갓김치, 깍두기
채리식품 - 된장, 간장, 고추장
전호로 주문 배달

☎ 군산 (0654) 452-4939
☎ 익산 (0653) 52-5300

오룡동 성당 신용협동조합

장의용품 일체 취급

입판, 염 무료봉사

군산시 오룡동 942-6

☎ (0654) 61-6767~8

문 병 원

직장여성을 위한 공휴일이 없는 병원
(평일 후9시, 토요일 후5시, 공휴일 후1시)

이 사 장 문지식(레나도)

병 원 장

상무이사 마취과장

기순중(안젤라)

☎ 82-8833~6, 84-2918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 · 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 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푸른광고기획

• 개업 · 회갑, 각종 행사 사은품
• 청첩장, 광고지, 봉투, 명함, 스티커
• 프랑카드, 상패, 명패, 트로피 등

정 오 평(라우렌시오)

서 란(마 리 아)

☎ (0652) 225-8147

휴대폰 011-657-8147

L G 에 어 콘

플라즈마 공기정화 에어컨
10개월 무이자+D/C

백제로 병상경기장 앞

(주) 삼 화 공 조

☎ (0652) 241-2000

사목단상

누가 도와야 하나...



김진화 신부/성소국장



“한 줌 쌀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를 돕시다”라고 외치며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이 매주 금요일 전주, 군산, 익산을 돌며 거리 모금에 나선지 두 달.

빛이 스펙트럼을 통해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나듯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두고 보여준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애초 모금운동과 함께 ‘우리는 북한동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 ‘민족의 통일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식량난에 빠져 있는 북한동포들을 자본주의 눈과 체제나 이념의 차이를 들어 비판하고 나무라야만 하겠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에 시민들이 보여준 반응은 대단히 흥미롭게 몸에 와 닿았다.

아예 나누어 주는 유인물 조차 받기를 거부하는 분들.

유인물을 받기는 하지만 눈길 조차 주지 않고 찢어버리거나 구겨서 버리는 분들.

“빨갱이 같은 X들 전쟁을 몰라서 X랄이야”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시는 분들.

잘 차려 입은 분들의 거의 공통적인 모습인데 “우리도 어려운데 이게 무슨 짓이야?”하며 중얼거리며 지나치는 분들

반면에 성금을 하고나서 그것도 부족해서 잠시나마 함께 모금운동을 해 주신 분들……

정말 다양한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었지만 돌아오는 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의 뜻까지 설명해 주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루가 8, 4-15)가 떠오르는 건 우연일까?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연이은 수해와 지도자들의 잘못때문에 한줌의 쌀과 한 그릇의 옥수수 죽이 없어서 지금 이순간에도 굶주려 죽어가는 북한의 어린이들과 백성들은 누가 도와주고 돌보아야 할 것인가?

그 잘난 미국인가? 일본인가? U.N인가? 아니면 같은 핏줄과 같은 말을 쓰는 남한인가?



한독안경원

서전 안경테, HOYA 렌즈, 바슈, 립 콘택트렌즈, 레이, 벤 썬그라스, A/S렌즈

안경사 이수엽(필레몬)
박은숙(레지나)

정읍시 수성동 우체국 정문앞

☎ (0681) 538-3333, 31-3331

김희민 정형외과

뼈, 관절, 척추, 신경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희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가격 저렴 품질향상

샤넬안경원

이순구(도미니꼬)

정병채(실비아)

익산시 중앙동 1가 13-10

☎ (0653) 54-9525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オル간,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지도 담당

김태우(알폰소) · 황진숙(안젤라)

동서관통로 다과교 입구

☎ 87-7717~8

교구소식

❖초등부 교사 연수

- 때 : 6월 24일(화)~26일(목)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은혜의 밤 철야기도

- 때 : 6월 27일(금) 밤 11시
- 장소 : 전동성당

❖중·고등부 교사 여름연수

- 때 : 6월 28일(토)~29(일)
- 장소 : 수류 청소년 야영장

❖선택 6월 모임

- 때 : 6월 29일(일) 오후 3시
- 장소 : 가톨릭 센터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때 : 7월 5일(토)~6일(일)
- 주제 : 하느님께 오르는 생활
- 지도 : 장인산 신부

❖교구 새신자 피정

- 때 : 6월 28일(토)~29일(일)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 지도 : 김동준 신부
- 문의 : (0653) 861-9210

❖오정선 신부 주소

Fr. Oh Jeng Sun
East Asian Pastoral Institute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O. BOX 221 1101
U.P. Campus, Quezon City
PHILIPPINES
☎ 001-63-2-924-0561

북한 형제 돕기 성금 접수

삼천동 성당(2차) 486,800원,
고창 성당 1,500,000원 상삼례 성
당 274,950원, 나동진 100,000원
강원관 64,630원, 이지영 50,000원,
김대군 30,000원, 익명 1,000,000원
소계 : 3,506,380원
총접수액 : 16,808,770원
성금 접수처 : 천주교 전주교구
사회복지회(84-5290)

성금 접수과 :

국민은행 506-21-0923-006(정양현)
우체국 402206-0054484-12(정양현)

성 소 모임

❖동정성모회

- 때 :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 장소 : 금암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 253-0325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원

- 때 :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 장소 : 호성동 성당 수녀원
- 문의 : (0652) 244-0094

❖인보성체 수도회

- 때 :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 장소 : 중노송동 본원
- 문의 : (0652) 84-3231

❖성바오로딸 수도회

- 때 : 매월 첫째주 오후 2시
- 장소 : 바오로딸 서원
- 문의 : (0652) 252-3398

권해 드립니다.

❖영성생활 13호

도서출판 영성생활/2500원
영성의 올바른 이해와 한국교회
의 영성심화를 목표로 1990년에 창
간되어 한해에 두번 발간되는 책자
이다. 이번 5월에 발간된 13호는 '권
위'에 대한 주제와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의 역사와 논어의 그리스도교적
이해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예수는 주님

리수현 옮김/ 6000원/
광주가톨릭대학출판부

세계 여러 지역 교회에서 '가톨릭
은사 쇄신 운동'에 관해 발표된 문
서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성령체험
과 신학적, 사목적인 방향제시를
설명하여 은사의 올바른 사용과 영
의 작용에 대한 분별, 그리고 참된
성령체험을 통해 초대교회 신자들
처럼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힘차
게 증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데레사 종합화장품

조현숙(베르베루아)

전동성당 사거리
구 성모병원 1층

☎ 83-5319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기초반·메이크업반·연구반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841-2495, 855-8653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지구의 치유"를 실천하기 위하여 땅을 귀하게 여기고 가깝게 여기는 사랑
의 작은 행위를 구체화 해야 한다. 이것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눔 차원의 사랑
이다. 마치 실천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서로의 짐을 져 주고, 고통 받는 이들,
빼앗긴 이들을 보살피며, 하느님의 자비를 매일 나누는 것처럼, 땅에 대한 사랑도 주
의 깊게 그리고 일관되게 걷는 것, 쓰레기를 줍는 것(그리고 쓰레기를 덜 만드는
것), 하느님이 주신 성장과 탄력, 활기의 능력이 빛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다.

연세가정의학과 의원

(통증클리닉·물리치료)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원장 : 전문의 이 장춘(요셉)

동서학동 교대 옆 무궁화주유소 사거리

☎ 232-3535~6

현 건축인테리어

- 실내외장식 · 통나무 전원주택
- APT인테리어 · 건축 개보수

양 두 현(가브리엘)
최 광 님(세실리아)

효자동 상산타운 맞은편

225-3570(집)
227-2945(사무실)

(주) 청풍 공기청정기

세계 최초 국제발명품대회 환경부문
8회 연속 금상 수상 · 담배연기, 냄새,
세균, 곰팡이균 등 오염물질 완전분해,
쾌적한 생활공간 · 무소음, 무휠터,
음이온(-) 산소발생 공기청정기

조흥기(아벨리나리스)
이현자(세 시 리 아)

☎ (0652) 251-0222

(주)이삭온돌침대「파워스톤」

수맥방지; 및 치료용 건강돌침대
(공업진흥청 전자파실험필,EMI)
박천문(베드로), 임선재(데레사)

전남북 총판

☎ (0652) 251-9836~7
휴대폰 011-651-7124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1. 모임 안내: ① 전례부, 편집, 테니스회-교중미사 후
② 사랑의 다리, 성소후원회-남부의 날
③ 부녀회-25일(수) 전 10시
2. 참회예절: 25일(수) 저녁미사중에 있음.
3. 병자방문: 27일(금) 후 2시부터
4. 전신사 불림대회: 29일(주일) 후 2시부터, 오늘까지 접수받음.
5. 구역 성화의 달: 6월은 한강구역, 하이츠구역 성화의 달임.
6. 북한 동포 돌기: 25일까지 옥수수 보내기 범국민 캠페인
7. 조당문제 면담: 신부님과 면담바람.
8. 도서관 운영: 책자, 비디오 테이프를 기증받고 있음.
9. 수익 사업: 바오로회, 부녀회 본당기금마련 수익사업에 협조바람.
10. 불우이웃 돌기: 대상자 선정 연락바람
11. 부속시설 신축현금: 금주 납입자-5명, 소계-250,000원
12. 금주 전례: 해설-문송옥, 독서-박만복(레오) 부부
봉헌-강영호(요셉) 가정
13. 차주 전례: 해설-한광희, 독서-최영재(요셉) 부부
봉헌-김희주(스테파노) 가정

□ 지난주 봉헌금: 1,557,250원 □ 교무금: 1,500,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춘 웅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바칩시다!

◎ 북한형제 돌기 2차현금: 오늘

1. 금주 모임: 애령회-공식미사 후, 2회의실
2. 주간 모임: ① 전례본과 모임-25일(수) 후 8시, 2회의실
② 엠마우스 모임-25일(수) 후 7시, 4회의실
3. 차주 모임: 방주회, 청년공동체모임 * 차주-교황주일 2차현금
4. 부제서품 선발예식: 박성문(요한)-오늘(22일) 후 5시,
치명자산 성당,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 바람.
5. 사람의 저금통: 차주(29일)까지 사무실에 봉헌하시기 바람.
6. 유아 세례: 26일(목) 후 7시 30분, 24일(화)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람.
7. 초등부 교사 연수: 24일(화)~26일(목), 나바위 피정의 집
8. 중·고등부 교사 연수: 28일(토)~29일(일), 수류 청소년 야영장
9. 예비신자 교리: 직장남-화요일 후 8시, 주부반-목요일 전 10시
* 많은 예비신자들을 하느님께 인도합니다(7월 15일까지).
10. 전입가정 환영: 오수근(실비아), 김인권(바오로), 이상호(요한)
11. 성당부지 현금 수입 감사! : 유창인 60만, 이종희 50만, 김금덕 12만,
김인순 50만, 김용철 60만, 김택근 100만, 신상호 40만, 최성철 10만,
고순희 60만, 김학수 100만, 조영채 30만, 박영남 30만, 정미숙 10만,
이희경 30만, 박양순 10만, 누계-2억 4천2백5십3만 5천원(382세대)
12. 독서: 금주(새벽)-① 오정곤 ② 이준옥, 차주-① 오광희 ② 황순자
금주(공식)-① 한병성 ② 김명순, 차주-① 박영호 ② 김영숙
13. 미사 안내: 금주-셋벌의 모후Pr., 차주-인자하신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1,727,320원 □ 교무금: 1,950,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주님, 흠어진 당신 백성을 모아 들이소서.

◎ 새 성전 신축위한 묵주기도 봉헌: 소계-11,072단
누계-448,817단

1. 모임: ① 꾸리아-오늘 공식미사 후
② 테니스-다음주일 후 2시
③ 본당 M.E-25일(수) 이종근(미카엘) 자택에서
2. 북한동포를 위한 2차현금: 오늘 봉헌
* 교황주일: 차주-2차현금 봉헌
3. 초등부 교사 연수: 24일~26일, 나바위 피정의 집
* 많은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
4. 중·고 교사 연수: 28일~29일, 수류 청소년 야영장
* 특별한 관심바랍니다.
5. 금주 전례: 해설-박연식, 독서-① 최공영, ② 국혜원
6. 차주 전례: 해설-오은표, 독서-① 이강윤, ② 김준애
7. 청소 봉사: 4구역 전체

□ 지난주 봉헌금: 922,3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주님, 흠어진 당신 백성을 모아 들이소서.

1. 금주 모임: ① 예비신자 환영식-낮미사중
② 대건회, 성모회-낮미사 후
③ 구역방문-성원골드(저녁미사 후)
* 북한 동포를 위한 2차 현금
* 성전 신축기금 마련을 위한 점심판매-낮미사 후
2. 구역방문: 23일(월)-운남, 25일(수)-비사벌, 26일(목)-황실
3. 음악기초교실: 24일(화) 후 8시
4. 초등부교사 여름연수: 24일(화)~26일(목), 나바위 피정의 집
5. 구역 미사: 27일(금)-동신1차, 7월 4일(금)-화산 1가
6. 중·고등부교사 여름연수: 28일(토)~30일(월), 나바위 피정의 집
7. 화산동 성당 친교바자회: ① 28일(토) 후 6시~10시
② 29일(일) 낮 12시~10시 ③ 음식 및 기증품 판매
* 기증물품-사무실에 접수 바람
8. 성전 신축에 임하는 우리의 결속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청소 봉사: 28일(토)-황금궁전Pr.
10. 교무금 수입현황: 283세대, 106,903,000원
11. 신축현금 수입현황: 292세대, 649,420,000원
12. 폐품 정리: 21일(토)-황금궁전Pr.
13. 금주 전례: 새벽-유희정, 낮-최정순, 저녁-정인자
14. 차주 전례: 새벽-곽순옥, 낮-이영순, 저녁-홍정의

□ 지난주 봉헌금: 808,050원 □ 교무금: 1,087,000원

효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보좌신부 223-3823 수 녀 원 223-3822 보좌신부 권 완 성
F A X 223-3821 사목회장 이 병 신

◎ 오늘: 북한동포를 위한 2차현금 있음

1. 금주 모임: ① 구역형제회-22일(일) 후 3시
② 전례해설단회의-24일(화) 후 8시
③ 흥분분과회의-24일(화) 후 8시
④ 꾸리아-25일(수) 전 10시
⑤ 사목회-27일(금) 후 8시
2. 차주 모임: ① 성체봉사자 모임-1일(화) 전 11시
② 구역봉사자 모임-2일(수) 전 10시 30분
③ 환자봉사체-2일(수) 후 2시부터
④ 성모기사회-5일(토) 전 10시
3. 금주 성서 통독: 신약연습-마르코복음
4. 주일 미사시간 변경: 9시→8시 30분으로
10시 30분→10시로
5. 성서공부: 모세오경-매주 수, 금요일 전 8시 30분~10시, 교육관,
지도-보좌신부
6. 성서 테이프를 빌려 드립니다: 단체, 개인별 * 사무실에 신청바람
7. 구역미사: 24일(화) 후 8시-쌍용1단지
8. 다음주 미사 안내 및 차(茶)봉사: 삼천주공3단지
9. 전입가정 환영: 최인자(글라라)-쌍용113-112 T. 226-9876

□ 지난주 봉헌금: 1,340,470원 □ 교무금: 1,603,000원

효지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김 규 완

◎ 성전 신축을 위한 묵주 100만단 봉헌:

소계-8,390단, 누계-744,342단

◎ 성전 신축을 위한 2차현금 실시

1. 금주 모임: ① 승리의 여왕Cu.-공식미사 후
② 반회장 준비모임-27일(금) 10시미사 후
2. 본당 청년연합회주최 성전 신축기금을 위한 일일호프:
① 일시: 21일(토)~22일(일)
② 시간: 후 2시~늦은 시간까지
③ 하이트광장(신광불령장 맞은편 2층) T. 225-0357
*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3. 매주 성가연습: 목요일 후 8시, 토요일 전 10시
4. 본당에서 저장용 마늘을 판매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5. 2차 신축현금 수입예: 누계-5억 4천7백1십6만원
6. 차주: ① 교황주일 2차현금 실시 ② 사목회, 요셉회
7. 북한 동포를 위한 사람의 저금통: 차주(29일)까지 제출바랍니다.
8. 금주 전례: 해설-김찬완, 독서-① 이종표 ② 정명희
봉헌 안내-임낙규, 서정옥 부부
9. 차주 전례: 해설-이종표, 독서-① 조세열 ② 이정금
봉헌 안내-김규완, 황경례 부부

□ 2차 현금: 700,510원

□ 지난주 봉헌금: 1,488,220원 □ 교무금: 1,294,000원